

<노처녀가>에 나타난 여성의 목소리와 그 의미

김용찬*

차 례

1. 머리말
2.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본 <노처녀가>의 작품 세계
3. 작품에 드러난 노처녀의 형상과 사회적 의미
4. 맺음말

|국문초록|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중요한 과정마다 그에 걸맞은 의례들을 치르게 되는데, 이를 일컬어 통과의례라고 한다. 그 가운데 결혼은 사람들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계기로 여겨졌기에, 예로부터 결혼을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로 지칭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남녀를 막론하고 결혼을 한 사람만이 비로소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았다. 그리하여 당시의 지배 계급이었던 양반들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두 집안 사이의 결속을 다지는 제도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적령기를 넘겨서 결혼하지 못하는 이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당시에는 제때 결혼하지 못한 이들에게 어떤 ‘결함’이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늦더라도 결혼을 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 가운데 하나였다고 하겠다.

특히 적령기를 넘겨 결혼하지 못한 ‘노처녀’들은 집안에서조차 제 몫을 하지 못하는 존재로 취급되었다. 당시의 사회에서도 노처녀는 ‘구휼(救恤)’의 대상으로 여겨졌기에, 그들의 현실적 욕구는 결혼의 성취에 있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노처녀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라 국가 정책의 하나로 거론되면서, 이른바 ‘노처녀 담론’을 형성할 정도였다고 한다. 가사 <노처녀가>는 가난 때문에 결혼하지 못한 양반 가문의 노처녀가 화자로 등장하여, 1인칭

* 순천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독백의 형식으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의 작품이다. 이 글에서는 작품에 드러난 여성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작품 세계를 따져보고, 노처녀의 형상이 지닌 사회적 의미를 점검해 보았다.

이 작품은 신세 한탄으로 일관하는 노처녀의 진술이 이어지면서, 어떠한 반전도 없이 자신의 처지를 자각한 화자의 체념으로 종결되고 있다. 화자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노처녀라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혼자 사설’을 토로하고 있는데, 작품 곳곳에서 자신의 결혼에 무관심한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양반 가문임에도 곤궁한 경제 사정에 처해있음을 인지하고, 부모에 대한 비판의 어조는 다소 누그러들기도 한다. 체념적인 어조로 종결짓는 작품의 결말은 당대 여성들이 각자의 주체적인 삶을 꾸려갈 수 없었던 무력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노처녀의 형상을 통해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가 견고하게 작동하던 조선시대의 문화와 제도의 이면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가사, 노처녀가, 1인칭 독백, 노처녀, 여성의 목소리, 결혼, 탄식, 체념 등.

1. 머리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중요한 과정마다 그에 걸맞은 의례들을 치르게 된다. 출생과 성인식은 물론 결혼과 죽음 등 개인의 성장 과정에 중요한 계기가 되거나, 혹은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면서 행해지는 의례를 일컬어 통과의례라고 한다. 이 가운데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비중이 큰일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져, 예로부터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로 일컬어졌다. 가족의 중심을 이루는 구성원은 부부이며, 이들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비로소 하나의 독립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조선시대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에서 ‘성인’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으며, 남녀를 막론하고 결혼을 한 사람만이 비로소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주지하듯이 조선시대에는 신분제가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지배 계층이

었던 양반들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혼사로 맺어진 가문들 사이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활용하기도 했다. 당시 지배 계급의 혼인은 대체로 중간에 매파(媒婆)라고 부르는 중매인이 개입하여, 결혼 당사자들의 가문이나 재산 등의 조건을 따져 맺어주었다.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자식이 있으면, 부모들은 매파를 내세워 자신의 가문과 걸맞은 집안과 혼약을 맺고자 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집안의 경제적 여건이 충분치 못하거나, 혹은 그밖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늦도록 결혼하지 못하는 이들도 발생하곤 했다. 특히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국가적으로 혼기를 놓친 노처녀들을 결혼시키려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은 일면 여성을 우대하는 듯하지만, 엄밀히 따진다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가 완고한 이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유가의 관점에서는 ‘음양의 조화에 의해 만물이 형성되고 운영된다고 보는데 여자가 결혼을 못 했다는 것은 곧 이 조화가 깨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¹⁾

적당한 나이가 되면 결혼하는 것을 당연시하던 당시에는, 제때 결혼하지 못한 이들에게 어떤 ‘결함’이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비록 늦더라도 결혼을 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다. 특히 여성으로서 적령기를 넘겨 결혼하지 못한 이른바 ‘노처녀’들은 자신이 속한 가문에서조차 제 몫을 하지 못한다고 여겨졌다. 사회적으로도 적령기를 넘겨 결혼하지 못한 여성은 ‘구휼(救恤)’의 대상으로 여겨졌기에, 당사자인 노처녀의 현실적 욕구는 우선 결혼의 성취에 두었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노처녀를 대상으로 다룬 문학 작품들은 고려 후기의 한시에서부터 등장하는데,²⁾ 특히 조선 후기에 이르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라 이른바 ‘노처녀 담론’을 형성할 정도였다고 한다.³⁾

1) 권순현, 「처가살이의 길고 긴 역사」,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 청년사, 1999, 37쪽.

2) 박일용은 노처녀를 화자로 등장시킨 일련의 작품들을 ‘노처녀시’로 분류하여, 가사 <노처녀가>와 비교하여 그 담론 특성을 다루고 있다. 박일용, 「<노처녀가(1)>의 담론 형태와 그 시학적 의미」, 『조선 후기 시가와 여성』, 월인, 2005.

3) 조선 후기 노처녀 담론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조할 것, 고순희, 「<노처녀가 1> 연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다양한 문학 갈래에서 노처녀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적지 않게 전해지는데, 가사에서도 현재 <노처녀가>라는 같은 이름의 작품은 모두 두 종류가 존재하고 있다.⁴⁾ 그 가운데 하나는 소설집 『삼설기』에 수록된 것으로써, 신체적 장애를 지니고 있으면서 결혼하지 못한 노처녀가 마침내 장애를 극복하고 결혼을 성취한다는 내용의 작품이다.⁵⁾ 다른 하나는 가난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한 양반 신분의 노처녀가 부모를 원망하는 내용으로, 이 글에서 이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펼치기로 하겠다.⁶⁾ 서사적 성격이 강한 『삼설기』본 <노처녀가>와 달리, 비교적 단형인 이 작품은 가난 때문에 노처녀로 늙어가는 화자의 1인칭 독백으로 진행된다. 특히 작품 전반에 걸쳐 혼인을 이루지 못한 노처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자식의 혼인에 관심이

구, 『한국시가연구』 제14집, 한국시가학회, 2003.; 성무경, 「‘노처녀’ 담론의 형성과 문학 양식들의 반향, 『한국시가연구』 제15집, 2004.; 장정수, 「규방가사에 나타난 ‘혼인 문제’와 여성 의 인식, 『어문논집』 제80집, 민족어문학회, 2017 등.

- 4) 기존의 연구에서는 두 작품을 이본 관계로 파악하면서, 두 작품이 ‘가사의 서사화 지향’이라는 구도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최원식, 「가사의 소설화 경향과 봉건주의의 해체, 『창작과 비평』 1977년 봄호, 창작과비평사.) 또한 이본 관계임을 내세우기 위해 그 작품명을 <노처녀가(1)>과 <노처녀가(2)> 등으로 명명했으나, 실제로는 제목만 다를 뿐 내용이나 성격이 전혀 다른 별도의 작품이기에 이 또한 적절하지 못한 명명법이다.(김용찬, 「<노처녀가(I/II)>고, 『어문논집』 5,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회연구회, 1961.) 현전하는 가사들 가운데 같은 제목의 작품들이 다수 존재하고, 그것들을 모두 일련번호를 붙여 구분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는 <노처녀가>를 비롯한 동일 제목의 작품들은 수록 문헌의 출전을 따져 이본 관계를 구분하거나, 별도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 글의 대상이 되는 작품은 ‘잡가본 <노처녀가>’ 혹은 ‘약부분 <노처녀가>’ 등으로 지칭할 수 있다.
- 5) 이 작품은 그동안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노처녀가(2)>라고 지칭되었다. 하지만 해당 작품의 대표적인 이본이 조선 후기의 소설집인 『삼설기』의 한 작품으로 수록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삼설기』본 <노처녀가>로 지칭하기로 한다. 이 작품의 성격과 작품 세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것. 김용찬, 「『삼설기』 소재 <노처녀가>의 내용 및 구조에 대한 검토, 『한국가사문학연구』, 태학사, 1996.; 김용찬, 「노처녀가 - 자신의 결혼을 의지와 열망으로 극복하다, 『조선의 마음을 담은 노래』, 휴머니스트, 2020.
- 6) 이 작품 역시 기존의 연구에서는 <노처녀가(1)> 혹은 ‘잡가본 <노처녀가>’ 등으로 지칭되었는데, 『삼설기』본 <노처녀가>와는 제목만 같고 전혀 다른 작품이다. 다양한 문헌에 수록된 이 작품의 이본들은 ‘한결같이 이본 간에 표기법 외에 구절의 이동이나 첨가 등의 텍스트 착간 현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성무경, 「‘노처녀’ 담론의 형성과 문학 양식들의 반향, 172~173쪽.)

없는 부모에 대한 원망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가 견고하게 작동하던 조선시대에 노처녀는 일단 ‘남녀 차별’이라는 현실을 체감해야만 했으며, 이와 함께 ‘미혼자’를 온전한 성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당대의 인식에 직면하는 등 ‘이중적 차별’에 직면해 있었다. 따라서 작품 속에 형상화된 노처녀의 모습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당당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화자의 욕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당대의 가부장제에 기반한 문화에서 주체적인 삶을 꾸려가기 힘들었던 여성들의 무력한 처지를 반영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적 의미를 표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먼저 작품에 드러난 여성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춰 작품 세계를 살펴보고, 노처녀의 형상이 당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따져보기로 한다.

2.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본 <노처녀가>의 작품 세계

일반적으로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가족 구성원들의 상호 관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족 구성원 가운데 부부는 유일하게 혈연이 아니며, 두 사람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비로소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남성 중심의 성리학적인 이념이 지배적으로 통용되던 조선시대에는,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나 대외적인 역할이 엄격하게 제약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당대 여성에게 있어 결혼은 자신이 살던 집에서 떠나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야만 하는 현실을 의미한다. 이른바 ‘시집살이’로 인해서 겪는 여성들의 삶은 매우 고단하고, 이에 관해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민요와 민담을 비롯한 다양한 문학 갈래를 대상으로 그 의미와 성격이 깊이 있게 논의되었다.⁷⁾

7) 최근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신동훈 외, 『시집살이 이야기 연구』(박이정, 2012)와, 규방

어느 시대이든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적령기를 넘겨 결혼하지 못한 이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노처녀를 등장시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서정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진 작품이 바로 가사 <노처녀가>이다.⁸⁾ 그동안 이 작품은 서사적 성격이 강한 『삼설기』 본 <노처녀가>와의 비교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되었으나,⁹⁾ 최근에는 그것과는 별개의 작품으로서 그 성격과 의미를 탐구하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¹⁰⁾ 여기에서는 일차적으로 정밀한 작품론을 전개하면서, 화자인 노처녀의 진술을 통해 드러나는 당대 여성의 현실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먼저 작품의 서두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가사에 나타난 ‘한탄’에 주목하여 다룬 양태순, 「규방가사에 나타난 ‘한탄’의 양상」(『한국시가연구』 제18집, 한국시가학회, 2005) 등을 참고할 수 있다.

- 8) 이 글에서는 다양한 이본들 가운데 국한문으로 표기되어, 각 구절이나 의미나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 비교적 쉽다고 여겨지는 이용기 편 『악부』(정재호 외 주해, 『주해 악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2)에 수록된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작품에 관한 이본 상황과 수록 문헌에 대해서는 성무경, 「‘노처녀’ 담론의 형성과 문학 양식들의 반향」, 170~171쪽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 9) 두 작품의 이본 관계에 주목하여 비교의 차원에서 함께 다뤄진 연구 성과들은 다음과 같다. 김용천, 「노처녀가(D(III)고」, 1961.; 최규수, 「<삼설기본 노처녀가>의 갈등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 제5집, 한국시가학회, 1999.; 성무경, 「‘노처녀’ 담론의 형성과 문학 양식들의 반향」, 2004.; 강경호, 「19세기 가사의 향유 관습과 이본 생성 -<노처녀가(2)>와 그 관련 작품을 통해 본 가사 향유의 한 양상」, 『반교어문연구』 제18집, 반교어문학회, 2005.; 김석희, 「<노처녀가> 이해의 시각」, 『선청어문』 제36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8.; 양정화, 「조선 후기 가사에 나타난 ‘애정담론’의 실현 양상 -<삼설기본 노처녀가>와 <잡가본 노처녀가>의 향유 문화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54집, 국제어문학회, 2012.; 조해숙, 「조선 후기 시가 속의 여성 인물 형상(1)」, 『국문학연구』 제27호, 국문학회, 2013.; 박상영, 「<노처녀가> 이본의 담론 특성과 그 원인으로서의 ‘시선」, 『한민족어문학』 제73집, 한민족어문학회, 2016.; 장정수, 「규방가사에 나타난 ‘혼인문제’와 여성의 인식」, 2017.; 최상은, 「조선 후기 여성의 두 가지 욕망과 탄식」, 『한민족어문학』 제82집, 한민족어문학회, 2018 등.
- 10) 고순희, 「<노처녀가>연구」, 2003.; 박일용, 「<노처녀가(1)>의 담론 형태와 그 시학적 의미」, 2005.; 하운섭, 「시적 체험의 다양성과 <노처녀가(1)>」, 『국어문학』 제44집, 국어문학회, 2008.; 김용찬, 「노처녀의 결혼에 대한 욕망을 노래하다, <노처녀가>」, 『오늘의 가사문학』 26, 한국가사문학관, 2020 가을 등

인간(人間) 세상(世上) 사름들아 이 니 말슴 드러 보쇼 / 천하(天下) 만물(萬物)
삼긴 후(後)에 초목(草木) 금수(禽獸)라도 짝이 있다 / 인간(人間)에 숨긴 남녀(男
女) 부부(夫婦) 자손(子孫) 갖것마는 / 이 니 팔자(八字) 험(險)썩을 손 날 갖흔 니
또 잇난가 / 백년(百年)을 다 살아야 삼만육천(三萬六千) 일(日)이로다 / 혼즈살이
천년(千年) 살면 정녀(貞女)되야 만년(萬年) 살지 / 답답(沓沓)흔 우리 부모 가난
흔 좀 양반(兩班)이 / 양반(兩班)인 체 된 체하고 처사(處事)가 불민(不敏)하야 /
괴망(怪妄)을 일삼으니 다만 혼 쏘 늙어간다¹¹⁾

먼저 화자는 ‘인간 세상 사람들’이라는 가상의 청자로 설정하여,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형식으로 작품을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서두의 진술은 ‘일반적인 가사 작품의 청자 끌어들이기 어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신의 문제를 세상 사람들을 향해 공개적이고 당당하게 펼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여겨진다.¹²⁾ 이어지는 내용에서 ‘짚신도 짝이 있다.’는 속담의 표현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천하 만물이 생긴 후에 ‘초목과 금수라도 짝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인간으로 태어난 남녀라면 당연히 부부의 인연을 맺어 자손을 낳고 살아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당위와는 달리 자신은 ‘험곳은 팔자’로 태어나 노처녀로 늙어간다는 화자의 한탄이 이어진다.

흔히 사람의 일평생을 ‘백년’이라 지칭하기에, 화자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생각에서 ‘백년을 다 살아야 삼만육천일’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였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살이를 한들 천년을 사는 것이 아니고, 숫처녀의 몸인 정녀(貞女)로 살더라도 만년을 사는 것도 아니라는 화자의 탄식이 뒤따른다. 결국 결혼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은 부모에 대한 비난으로 표출되는데, 이는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화자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 이해된다. 자신이 노처녀로 늙어가는 이유를 ‘답답한 우리 부모 가난한 좀 양반’

11) 원문은 띄어쓰기가 전혀 없는 국한문 혼용체이지만, 편의상 원문의 한자는 한글을 내어 쓰고 괄호 안에 기입하였다. 아울러 인용문은 현대 어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했으며, 4음보 1행에 맞춰 행 구분(/)을 하였다.

12) 고순희, 「<노처녀가> 연구」, 175쪽.

의 탓으로 여기고, ‘양반인 체 된 체하고 처사가 불민’하기 때문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즉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부모들이 양반의 처신을 중하게 여긴다고 평가하겠지만, 화자는 그저 딸이 노처녀로 늙어가도록 방치하는 부모의 처사가 ‘불민(不敏)하’다고 생각될 뿐이다. 나아가 부모의 처사를 ‘괴망(怪妄)을 일삼’는다고 진술하여, 자식이 부모를 평가하는 표현으로서는 다소 지나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후에도 이 작품에는 지속적으로 부모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표현이 강도를 점점 더해가며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부모를 비난하는 작품 속의 표현들이 지니는 의미를,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화자의 ‘패륜적 발언’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¹³⁾ 그러나 이러한 진술이 지니는 의미를 깊이 음미하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조선시대에는 여성이 결혼하려면 부모의 역할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혼인을 주선하지 않는다면, 화자와 같은 노처녀는 그저 미혼인 채로 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화자는 노처녀로 늙어가는 자신의 처지를 부모의 탓으로 여기고,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부모에 대한 원망도 깊어갔을 것이다. 따라서 결혼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 화자의 비난은 자연스럽게 부모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이해된다.

물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원망이 아무리 깊다고 해도, 부모가 듣는 곳에서는 이러한 직설적인 비난을 표출하지는 못했을 것이다.¹⁴⁾ 하지만 이 작품이 노처녀의 ‘1인칭 독백’이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으며, 자신의 결혼에 무관심한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자신도 모르게 독백의 형태로 표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13) 작품 속에서 이러한 어법의 사용을 ‘화자가 아닌 또 다른 이, 즉 작가의 개입’으로 해석하면서, 부모를 비난하는 화자의 표현을 ‘패륜적 발언’으로 논하였다. 고순희, 「<노처녀가 1> 연구」, 175~179쪽.

14) 위의 구절에서 부모를 향해 표출된 ‘좀 양반’이라는 표현은 ‘성질이 잘고 웅졸하다’라는 의미의 ‘좀스럽다’에서 온 것이며, ‘불민하다’라는 용어 역시 ‘어리석고 둔하여 민첩하지 못하다’라는 의미이다. 아울러 부모의 처사를 ‘괴이하고 망측(怪妄)’하다고 표현하고 있어, 의미상으로는 충분히 ‘패륜적 발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있다.¹⁵⁾ 작품 속에서 부모에 대한 비난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화자가 자신의 처지에 대해 더욱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을 문맥적 의미를 따져 ‘패륜적 발언’으로 단정하기보다는, 화자의 절망적인 현실 인식과 이에 따른 심적 상태를 표출하는 ‘시적 장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작품에서는 화자의 비난이 부모에게로 향하고 있지만,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갈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서 당대 여성의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진술은 견고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가 작동되고 있는 당대 문화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적막(寂寞)흔 빈방(房) 안에 적적(寂寂) 요요(寥寥)하게 혼즈 안즈 / 전전불매(顛轉不寐) 잠 못 드러 혼즈 사설(辭說) 드러 보쇼 / 노망(老妄)흔 우리 부모(父母) 날 길너 무엇 흐리 / 죽도록 날 길너서 자바 쓸진 구어 쓸진 / 인황씨(人皇氏) 적습긴 남녀(男女) 복희씨(伏羲氏) 적 지은 가취(嫁娶) / 인간(人間) 배합(配合) 혼취(婚娶)함은 예로부터 잇것마는 / 옛던 처녀(處女) 팔자(八字) 도와 이십(二十) 전(前) 식집간다 / 남녀(男女) 자손(子孫) 식집 장가 췌헛흔 일이건만 / 이 니 팔자(八字) 기험(奇險)하야 사십(四十)까지 처녀(處女)로다 / 이런 줄 알앗스면 처음 아니 나올 거슬 / 월명(月明) 사창(紗窓) 긴 긴 밤에 침불안석(寢不安席) 잠 못 드러 / 적막(寂寞)흔 빈방 안에 오락가락 단니면서 / 장래사(將來事)를 싱각하니 더욱 답답(沓沓) 망망(惘惘)하다

화자는 ‘적막한 빈방 안에 적적 요요 혼자 앉아’ 다른 사람들과 전혀 소통하지 못하고, ‘전전불매’하는 상태로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리하여 들어줄 사람조차 없는 화자의 하소연은 다시 가상의 청자인 세상 사람들을 향한 ‘혼자 사설’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죽도록 날 길러서’ 시집을 보내지

15) 작품에 그려난 화자의 부모에 대한 비난을 ‘노처녀의 억눌린 내면의 표출’로 이해하고, ‘현실 세계에서 억압된 노처녀의 발화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시적 상황을 창출하여 과장된 어조로 부모를 비난한 것’이라는 해석도 경청할 만하다. 박일용, 「<노처녀가(1)>의 담론 형태와 그 시학적 의미」, 95쪽.

않는 부모의 처사를 두고 ‘노망(老妄)’이라고 비난하면서, 거둬하여 부모에 대한 원망을 토로하고 있다. 만약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라면 ‘잡아 쓰거나 구워 쓸’ 수 있을 터이지만, 노처녀로 늙어가는 자신은 그저 쓸모없이 지내고 있다는 탄식으로 이어진다. 화자는 곰곰이 생각할수록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기에, 이에 따라 부모에 대한 원망의 강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부모를 원망한다고 해서 자신의 처지가 바뀌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화자는 화제를 바꾸어 결혼이 인간의 보편적인 도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고대의 ‘인황씨’와 ‘복희씨’까지 언급함으로써, ‘남녀 가취(嫁娶)’와 ‘인간 배합 혼취(婚娶)’가 예로부터 내려온 법도임을 환기하는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자신은 그러한 법도에 따르지 못하는 처지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상황을 나이 ‘이십 전에 시집’을 간 주변의 ‘어떤 처자’와의 비교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즉 ‘남녀 자손 시집 장가는 떼땀한 일’인데, 자신의 ‘팔자가 기험하여’ 나이 사십이 되도록 처녀로 늙어가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다. 이처럼 남들과 달리 나이가 들어서도 노처녀로 남아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이 바로 ‘혼자 사설’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에 대한 원망과 함께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절감한 화자는, 이어서 차라리 처음부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탄식을 토로하였다. 화자의 신세 한탄은 들어줄 사람조차 아무도 없는, 철저히 혼자만의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리하여 ‘월명 사창 긴 밤에 침불안식’ 잠을 못 이루고, 그저 ‘적막 빈방 안에 오락가락 다니면서’ 자신의 처지를 떠올려보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화자는 ‘장래의 일(將來事)’이라고 언급된 자신의 결혼에 대한 가능성을 떠올려보지만, 아무런 전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저 ‘답답 망망’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부친(父親) ᄃ나 반편(半偏)이오 모친(母親) ᄃ나 숙맥불변(菽麥不辨) / 날이
 시면 내일(來日)이오 세(歲)가 쇠면 내년(來年)이라 / 혼인(婚姻) 사설(辭說) 전폐
 (全廢)ᄃ고 간난(艱難) 사설(辭說) 썩이로다 / 어더서 손님(任) 오면 행(幸)혀나

중매(中媒)신가 / 아히 불너 힐문(詰問)흔 즉(則) 풍헌(風憲) 약정(約正) 환상(還上) 지촉 / 어디셔 편지(片志) 왓네 행(幸)혀나 청혼선(請婚書)가 / 아해(兒孩)다려 무러 보니 외삼촌(外三寸)의 부음(訃音)이라 / 이달고 셔른지고 이 간장(肝腸)을 어이 할고 / 압집에 아모 아기(阿只) 받셔 자손(子孫) 낫단 말가 / 동편(東便)집 움핑이는 금명간(今明間)에 식집가니 / 그 동무(同務)에 무정(無情) 세월(歲月) 식집가셔 풀 것마는 / 친구(親舊) 업고 혈속(血屬) 업다 위로(慰勞)흐 리 전(專)혀 업네

자신의 처지에 대한 고민으로 밤을 지새우는 화자의 원망은 다시 부모에게로 향하고, ‘부친 하나 반편이오 모친 하나 숙맥불변’이라 표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반편(半偏)’은 지능이 보통 사람보다 현저하게 낮은 사람을 지칭하며, ‘숙맥불변(菽麥不辨)’이라는 표현도 콩과 보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역시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다. 작품 속에서 부모를 향한 비난의 어조가 더욱 강화되는 현상은 결국 노처녀로 늙어가는 화자의 비판적인 처지가 바로 그들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날이 새면 내일이오 해가 쇠면 내년이’ 될 정도로 시간을 빠르게 흘러가지만, 부모에게는 ‘혼인 사설 전폐하고 가난 사설 뿐’이라는 현실에 처해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고, 부모는 당장 자식의 결혼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는 것 역시 화자는 잘 알고 있다. 이처럼 화자는 부모로부터 자신의 ‘혼인 사설’이 나오기를 바랐지만, 반면에 부모는 현실로 닥친 ‘가난 사설’에 대한 걱정이 깊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비록 부모에 대한 비난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화자의 진술을 통해 집안의 경제 사정이 매우 곤궁한 처지임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궁핍을 헤쳐 나갈 ‘가난 사설’보다 딸의 ‘혼인 사설’이 앞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화자 역시 가난한 상황에서 부모가 자신의 결혼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혼에 대한 갈망이 짙은 화자에게 이러한 집안의 사정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오직 자신의 혼인을 위한 ‘중매’와 ‘청혼서’의 소식에 관심을 기울일 뿐이다. 손님이

오면 행여 자신에게 중매를 서기 위한 사람인가를 아이에게 묻지만, 봄에 빌린 환상을 재촉하는 풍헌과 약정의 방문이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집안에 도착한 편지가 혹시 화자의 혼인을 위한 청혼서인가 하는 궁금증이 들어 다시 아이에게 물어보지만, ‘외삼촌의 부음’임을 알고 실망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한다. 실상 ‘환상의 재촉’이나 ‘외삼촌의 부음’ 등은 부모의 처지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태라 할 수 있지만, 오로지 자신의 결혼에만 집중되어 있는 화자에게는 그마저도 관심 밖의 문제일 뿐이다.

결혼에 대한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화자는 마치 간장이 타는 듯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러면서 앞서 결혼한 ‘앞집의 아무개 아기’는 벌써 자식을 낳았고, 동쪽에 사는 ‘옴팡이는 금명간에 시집간다’는 소식과 노처녀인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서로 동무로 지내면서 각자의 신세를 ‘무정 세월’이라고 여겼지만, 이미 시집을 간 ‘동무’들은 옛날의 그러한 심정이 다 풀렸을 것이라고 짐작도 해보았다. 화자에게는 현재의 처량한 신세를 알아줄 친구와 피붙이(血屬)도 없으며, 아울러 위로를 해줄 사람조차 없다는 사실이 서러울 뿐이라 하겠다. 이처럼 부모에게 닥친 집안의 어려운 사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화자의 관심이 전적으로 노처녀인 자신의 결혼이라는 주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부모(父母) 무정(無情)하야 니 생각 전(專)혀 업다 / 부귀(富貴) 빈천(貧賤) 생각(生覺) 말고 인물(人物) 풍채(風采) 맛당커던 / 처녀(處女) 사십(四十) 늑히 적쇼 혼인(婚姻) 거동(舉動) 츠려 주쇼 / 김동(金童)이도 상처(喪妻)하고 이동(李童)이도 기처(棄妻)로다 / 중매(中媒) 할미 전(專)혀 업네 놀 차치 리 뉘시든고 / 감정 암쇼 살져 잇고 봉사(奉祀) 전답(田畓) 갖것마는 / 사족(土族) 가문(家門) 가리면서 이디도록 늑어간다 / 연지분(臙脂粉)도 잇건마는 성적(成赤) 단장(丹粧) 전폐(全廢)하고 / 감정 차마 현 저고리 화경(花鏡) 거울 압히 낫코 / 원산(遠山) 갖흔 푸른 눈썹 세류(細柳) 갖흔 허리 / 아름답다 늑의 자태(姿態) 묘(妙)호도다 늑의 거동(舉動) / 흐르는 세월(歲月)에 앓가울 손 늑어간다 / 거울다려 흥는 말이 어화 답답(沓沓) 내 팔자(八字)여 / 갈 썩 업다 늑도 늑도 쓸 썩 업다 너도 너도

/ 우리 부친(父親) 병조판서(兵曹判書) 혼아버지 호조판서(戶曹判書) / 우리 문벌
(文閥) 이러하니 풍속(風俗) 좃기 어려워라

작품 후반부로 갈수록 부모에 대한 원망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비난의 강도는 이제 조금씩 누그러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화자는 자식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부모가 무정하’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어조의 변화는 부모의 관심을 화자의 결혼이라는 문제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이해된다. 노처녀인 화자는 혼인 상대의 ‘부귀와 빈천’ 같은 조건은 상관없이, 그저 신랑의 ‘인물과 풍채가 마땅하’다면 좋다고 진술한다. 자신도 처녀 나이 사십으로 적은 나이가 아니기에, 자신을 위해 ‘혼인 거동’을 차려주는 것만으로 족하다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부모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화자의 결혼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발언은 자신의 결혼에 부모의 역할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에 토로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전까지 부모의 무관심과 노처녀라는 자신의 신세, 그리고 주변 상황과의 비교를 통해 탄식을 토해내던 태도와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자신의 현실적 처지를 자각한 화자가 사전에 대상을 탐색해 보았던 듯한데, 이전에 ‘상처(喪妻)’하거나 ‘기처(棄妻)’하여 현재 홀아버로 지내고 있는 ‘김동이’와 ‘이동이’라는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마땅한 대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과 연결해 주는 ‘중매 할미’가 없으면 혼인이 성사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결혼이 성사되려면 그에 걸맞은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화자는 부모의 무관심으로 인해 ‘중매 할미’도 자신을 찾지 않는다는 탄식을 표출하고 있다. 화자는 자기 집안에 ‘검정 암소’와 ‘봉사 전답’을 보유하고 있음을 떠올리며, 만약 그것을 팔아서 비용을 마련한다면 중매를 통해 혼인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떠올려보았다. 오로지 자신의 결혼에만 관심을 둔 노처녀로서는 부모가 이러한 것들을 팔아서라도 혼인 비용으로 사용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 소는 농사를 짓는데 가장 긴요한 수단이었으며, 조

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마련된 ‘봉사(奉事) 전답(田畓)’은 사대부로서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이었다. 그리하여 ‘사족 가문’으로서의 역할만 따지는 부모로 인해, 자신의 결혼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서운함이 표출된 것이다.

결혼 상대를 물색할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화자는 자신이 비록 노처녀의 신세이지만 여전히 외모로는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한다. 외모를 단장하는데 필요한 ‘연지분’을 갖추고 있지만, 화자는 외출은커녕 집에만 머물고 있기에 ‘성적 단장을 전폐’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강조한다. ‘검정 치마’와 ‘흰 저고리’를 꺼내어 거울 앞에서 모습을 비춰보고, ‘원산(遠山) 같은 푸른 눈썹’과 ‘세류(細柳) 같은 허리’로 대표되는 화자의 ‘자태와 거동’을 ‘아름답고 묘하다’라고 자평해 보았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도 잠시이고, 문득 ‘흐르는 세월에’ 노처녀로 늙어가는 모습이 아까울 지경이라는 현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자신의 처지를 다른 이에게 하소연할 수조차 없기에, 화자는 그저 거울을 보면서 ‘어화 답답 내 팔자여’라는 탄식을 내뿜을 뿐이다. 결국 화자는 혼인 상대가 없어 ‘갈 데’가 없고, 외출하기 위해 치장할 일이 없으니 거울 또한 ‘쓸 데’가 없음을 절감하였다. 문득 ‘병조판서’를 역임한 부친과 ‘호조판서’를 지내신 할아버지로 대표되는 화자의 ‘문벌(文閥)’을 떠올리며, 부모들도 세상의 풍속을 좇아 급하게 결혼을 시키지 못하는 처지임이 안타까울 뿐이다. 부모에게 비난을 퍼붓던 이전의 태도와는 달리, 화자는 부모와 가문의 문제로 자신의 결혼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자각하게 된 것이라 이해된다.

아연(俄然)듯 춘절(春節) 드니 초목(草木) 군생(群生) 다 즐기네 / 두견화(杜鵑花) 만발(滿發)하고 잔피 닢 속님 난다 / 썩은 바자 썩썩하고 종달시 도두 쓴다 / 춘풍(春風) 아월(夜月) 세우(細雨) 시(時)에 독숙공방(獨宿空房) 어이 홀고 / 원수(怨讐)의 아해(兒孩)들아 그런 말 흥지 마라 / 압집에는 신랑(新郎) 오고 뒷집에는 신부(新婦) 왔네 / 니 귀에 듣는 비는 늦길 일도 흥고 만타 / 녹양(綠楊) 방초(芳草) 점은 날에 희는 어이 수이 가노 / 초로(草露) 갖흔 우리 인생(人生) 표연(飄然)이 늙어가니 / 머리치는 엽히 씨고 다만 혼숨 썩니로다 / 긴 밤에 짝이 업고

긴 날에 벗시 었다 / 안갓다가 누엇다가 다시금 싱각하니 / 아마도 모진 목숨 죽
지 못히 원수(怨讐)로다.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배경이 되는 시간과 공간이 모두 전환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전까지 노처녀로 늙어가는 자신의 처지를 ‘전전불매’하면서 ‘침불안석’의 상태로 밤을 새워 탄식하던 화자의 모습이 형상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계절이 갑자기 ‘춘절’로 바뀌어, 주변의 화사한 풍광과 화자의 처량한 모습을 대비시켜 표현하고 있다. 아울러 이전까지 격렬한 어조로 진행되었던 부모에 대한 언급도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어조의 변화는 자신의 결혼이 부모만의 뜻이 아니라, 집안의 곤궁한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근본적인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결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여기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태동하는 봄철의 분위기와 결혼을 서두르는 이웃들의 소식이 제시되고, 이에 반해 노처녀로 늙어가는 화자의 우울한 심정이 대비되어 형상화되고 있다. 이전까지 즐기차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 ‘혼자 사실’을 토로하였던 상황이,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는 그 배경이 바뀌어 ‘초목 군생 다 즐기’는 봄철로 제시된다. 흔히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의 분위기는 밝게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 작품에서도 역시 그러한 봄철의 전형적인 형상이 묘사되고 있다. 봄철이 되어 ‘두견화 만발하고 잔디 잎 속잎’ 나면서, 어느새 주변의 자연은 울긋불긋한 풍광을 연출하고 있다. 흔히 대나무나 갈대 따위로 엮어 만든 울타리를 ‘바자’라고 일컫는데, 한겨울을 지난 울타리는 다 썩고 말라서 봄철이 되면 조그만 자극에도 ‘쨍쨍하고’ 우는 소리가 날 정도이다. 종달새는 따뜻한 봄 분위기를 만끽하듯 높이 떠서 날지만, 반면에 화자는 봄바람이 부는 달밤에 가랑비가 내리는 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독숙공방’을 하는 처지로 비교되고 있다.

봄이 되어 이웃 사람들의 혼인 소식을 전하는 아이들이 마치 ‘원수’처럼 생

각될 정도이기에, 화자는 ‘앞집에는 신랑 오고 뒷집에는 신부 왔네’ 하는 따위의 ‘그런 말 하지 마라’고 당부할 정도이다. 자신도 이미 그러한 소식을 ‘내 귀’로 듣고 ‘느낄 일도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주변의 흥겨운 분위기와는 달리, 화자는 노처녀로 늙어가는 자신의 신세를 새삼 인식하면서 작품을 마무리 짓고 있다. 봄철의 ‘녹양 방초’를 배경으로 저무는 날에 ‘해는 어이 쉽게 가는가’라는 탄식과 함께, ‘초로 같은 우리 인생 표연히 늙어간’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결혼하지 못한 처녀는 머리를 올릴 수 없으니, 그저 길게 땀은 ‘머리채는 옆에 끼고 다만 한숨’을 쉬는 화자의 처량한 형상이 제시될 뿐이다.

노처녀로 살아가는 화자의 처지는 배우자가 없으니 ‘긴 밤에 짝이 없고’, 친구들은 이미 다 시집을 가서 ‘긴 날에 벗이 없’는 신세라고 하겠다. 그리하여 ‘앉았다가 누었다가 다시금 생각’해 보지만, ‘모진 목숨’이라 ‘죽지 못한’ 현재의 처지가 그저 ‘원수’처럼 여겨진다는 체념과 함께 작품은 종결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노처녀가>는 화자의 독백으로 진행되면서 노처녀로 늙어가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때로는 부모에 대한 원망과 비난이 표출되기도 하지만, 끝내 노처녀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한 화자의 목소리가 작품 전반에 탄식의 어조로 표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작품에 드러난 노처녀의 형상과 사회적 의미

이제 작품에 드러난 노처녀의 형상이 갖는 특징을 살펴보면, 그것이 당대의 사회적 의미와 어떠한 연관을 맺는지에 대해 점검하기로 하겠다. 어느 시대에나 제때 결혼을 하지 못한 이들이 있기 마련인데, 특히 조선 후기에는 ‘노처녀의 문제가 국가 정책 및 사회 제도적인 문제로 중요하게 인식된 사안’으로 여겨졌다고 한다.¹⁶⁾ 그리하여 적령기를 넘겨 결혼하지 못한 ‘노처녀’는 구휼

(救恤)의 대상으로서, 당시의 조정에서는 정책을 집행하는데 적지 않은 관심을 기울였던 문제였다. ‘실록’을 비롯하여 조선 후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의 조정에서 늙도록 결혼을 하지 못한 이들의 혼인을 주선하도록 건의하는 내용들이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그 가운데 이른바 ‘노처녀’와 관련된 내용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노처녀 담론’이 당대의 사회적 관심사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조선 후기의 사회적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었던 ‘노처녀 담론’의 핵심은 당대 지배 계층인 사대부 가문에 해당하는 문제였다. 특히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혼수가 없어서 혼사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가문의 위신과 체면을 내세우는 부모들로 인해 신분에 걸맞은 혼처가 생기지 않으면 혼사를 치르지 않았다고 한다.¹⁷⁾ 이 작품에서도 화자는 ‘우리 부친 병조판서 할아버지 호조판서’라는 진술을 통하여 ‘사족 가문’이라고 언급하면서, ‘우리 문벌 이리하니 풍속 좇기 어려’운 상황임을 토로하고 있다. 화자는 자신과 같이 적령기를 넘겨 결혼하지 못한 자식이 있다면, 부모로서 서둘러 결혼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부모는 ‘문벌’을 따지는 ‘사족 가문’으로서 사회적 이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노처녀로 늙어가는 자식의 결혼이라는 ‘풍속을 좇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집안의 곤궁한 경제 상황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작품 초반부에서는 부모들을 비난하면서, 화자는 ‘답답한 우리 부모 가난한 좀 양반이 / 양반인 체 된 체하’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즉 노처녀로 늙어가는 화자는 자신의 현재 상황이 ‘가난한 양반’인 부모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검정 암소’와 ‘봉사(奉祀) 전답(田畓)’도 있는 ‘사족 가문’이면서도, ‘나이 사십’이 넘은 딸자식을 노처녀로 늙어가게 한다는 불만도 표출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진술은 화자 혼자 있는 ‘적막한 빈방’에서 밤늦도록 ‘전전불매’하고 ‘침불안석’의 상태로 ‘독숙공방’하는 상황에서 이뤄지

16) 성무경, 「‘노처녀’ 담론의 형성과 문학 양식들의 반향」, 161쪽.

17) 고순희, 「<노처녀가 1> 연구」, 172쪽.

고 있다. 작품 서두에서 가상의 청자인 ‘세상 사람들’을 설정하였지만, 그것은 자신의 진술을 이어가기 위한 ‘시적 장치’일 뿐 실상은 ‘혼자 사설’의 형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화자의 발화는 실질적 청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세상 사람들’이라는 가상의 청자를 동원하여 작품을 시작하고, 비록 독백이기는 하지만 화자는 자신의 상황을 장황하게 토로할 수 있는 ‘시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작품에서 노처녀의 진술은 일관되게 자신의 결혼만을 절실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결혼하지 못한 여성을 ‘불완전한 존재’로 여기는 당대의 시각에서 그 의미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작품에서는 결혼 이후 화자의 행복한 삶의 모습이라든지, 이상적인 배우자에 대한 기대 등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단지 화자의 현실적 목표는 ‘노처녀’라는 현재의 불완전한 상태에서 벗어나, 어떤 형태로든지 결혼만 하면 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세상 사람들’이라는 가상의 청자를 설정한 것은 ‘이십 전에 시집’가는 여성들의 보편적인 현실과 ‘나이 사십의 노처녀’라는 화자의 처지를 비교하기 위한 진술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고대의 ‘인황씨’와 ‘복희씨’까지 거론함으로써 결혼의 당위성을 제시하면서, ‘남녀의 시집 장가는 떼떽한 일’이라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결혼에 대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장래사는 답답하고 망망’할 뿐이라는 화자의 탄식이 이어진다.

이처럼 노처녀로 늙어가는 자신의 신세를 부각하면서, 화자는 그 원인을 제공한 부모에 대한 원망과 비난으로 이어가고 있다. 즉 ‘갑갑하고 암울한 상황에서 탈출하여 사회적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부모’를 향한 화자의 비난이나 불만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¹⁸⁾ 작품에서 세상의 현실과 화자의 처지가 결혼이라는 문제로 비교될수록, 부모에 대한 비난의 강도는 높아지고 있다. 부모에 대해 화자가 내뿜는 비난의 어조는 ‘적막한 빈방’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결혼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더 강했기 때문에 ‘독백’의 형식으

18) 장정수, 「규방가사에 나타난 ‘혼인 문제’와 여성의 인식」, 11~12쪽.

로 불만을 표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표면적으로는 화자의 비난이 부모를 향해 표출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화자가 부모에게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문화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중심에 놓여있다. 즉 여성들이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에 대한 당대 여성들의 비판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들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화자는 ‘가난 사설’로 표현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부모가 결혼에 대해 무관심할 수밖에 없음을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되었다. 이후 화자의 부모에 대한 비난의 강도가 누그러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품 초반에 ‘좀 양반’이나 ‘노망’ 등의 용어로 거칠게 퍼붓던 비난의 어조는 어느새 ‘우리 부모 무정하’다는 표현으로 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화자는 자신의 가문이 ‘가난한 사족’이라는 현실을 인지하고, 자신은 ‘기처(棄妻)’나 ‘상처(喪妻)’의 경력을 지닌 남성과도 혼인을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아마도 부모는 ‘부귀 빈천 생각’하여 딸의 혼처를 따질 것이라고 여기지만, 화자는 ‘인물 풍채 마땅’하다면 기꺼이 자신의 혼인 상대로 받아들여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팔자’를 탓하는 것으로 화자의 태도는 바뀌게 된다고 하겠다. 물론 작품에 제시된 이러한 내용들은 철저히 노처녀인 화자의 시각에 의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화자의 진술들이 지닌 의미를, 당대의 사회적 상황과 부모가 처한 현실적 조건에 대응해서 음미해 보기로 하자. 일단 화자의 진술을 통하여, 부친은 ‘병조판서’를 역임했던 인물이며 ‘문벌’을 내세울 만한 ‘사족 가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만약 당대의 ‘풍속을 좇아서’ 노처녀인 딸을 결혼시키려고 한다면, ‘사족 가문’에 걸맞은 혼수가 준비되어야만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화자의 진술에서도 드러나듯이, 집안의 경제적 형편은 ‘풍헌 약정 환상 재촉’에 시달리는 ‘좀 양반’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그렇기에 집으로 오는 ‘손님’과 ‘편지’를 접하면서 화자는 ‘중매’나 ‘청혼서’를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환상 재촉’이나 ‘외삼촌의 부음’과 같은 가족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아마도 부모의 처지에서는 노처녀로

늘어가는 딸자식의 상황이 안타까우면서도,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서 화자의 결혼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 짐작된다.

화자는 ‘검정 암소’와 ‘봉사 전답’을 팔아서라도 혼인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러한 재산들에 함유된 현실적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겠다. 농업을 근본으로 하는 당시에 해마다 농사를 짓는 부모의 처지에서는, 소가 집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화자의 말처럼 소를 판다면 당장 혼인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다음 해부터 농사를 짓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에게 있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봉제사(奉祭祀)’는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접빈객(接賓客)’과 함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여겨졌다.¹⁹⁾ 따라서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소유한 ‘봉사 전답’은 당시에 사대부로서 최소한의 존립 근거를 갖추는 재산이다. 따라서 부모에게는 이 역시 ‘사족 가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기에, 결코 쉽게 처분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재산들은 쉽사리 결혼 비용으로 충당될 수 없는 것이었기에, 그에 대한 화자와 부모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양립되기 힘든 것이었다. 아마도 부모가 작품에서 표출되는 딸의 비탄과 불만을 직접 들었더라도, 그 의도를 수궁하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원망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화자는 결혼이라는 현실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처(喪妻)’나 ‘기처(棄妻)’의 경력이 있는 남성들과의 중매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부모로서는 딸자식을 그들의 재혼 상대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을 터이고, 막상 그렇게 결정했다더라도 ‘사족 가문’에 걸맞은 혼수를 갖추 수 있을까를 걱정했을 것이다. 당장 ‘환상 재촉’에 시달리는 곤궁한 상황에서 딸의 혼사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기에, 부모들은 ‘중매 할미’의 발길을 집안에 들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외모와 거동이 여전히 아름답고 묘하다고 여기면서,

19) 이순구, 「조선시대 여성의 일과 생활」,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1999, 192~196쪽.

옷과 화장품을 꺼내어 거울에 모습을 비춰보기도 하였다. 여전히 화자는 자신의 결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여성의 삶이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존하도록 했던 남성 중심의 문화와 사회 구조라고 하겠다. 작품에서는 ‘사족 가문’과 ‘문벌’이라는 표현으로 드러나며, 견고한 남성 중심의 문화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태도는 화자에 의해 ‘좀 양반’ 혹은 ‘반편이’나 ‘숙맥불변’이라고 지칭되고 있다고 이해된다.

이러한 견고한 장벽을 인식한 화자는 결국 자신의 결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체념으로 작품을 종결짓고 있다. 작품 초반에 표출되었던 부모에 대한 격렬한 비난과 불만의 어조들이 화자에게는 일종의 ‘인정 투쟁’이자 ‘희망 고문’이었던 셈이다. 즉 부모가 화자의 기대에 부응한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결혼이 성사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자신에게 무관심한 부모에 대한 항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사족 가문’으로서 부모의 역할은 ‘가난 사설’로 드러나는 집안의 곤궁한 경제 사정을 먼저 헤아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만약 딸의 결혼을 추진한다고 해도, ‘사족 가문’에 체면과 위신에 걸맞은 상대를 구하고 적절한 혼수를 장만하여야만 했다. 화자의 독백이 진행되면서 부모와 집안의 곤궁한 경제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면서, 부모에 대한 비판의 어조는 처음보다 다소 누그러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이해된다. 그리하여 화자는 결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면서, 좌절과 체념의 어조로 작품을 종결짓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형상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가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조선시대에, 각자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갈 수 없었던 여성들의 무력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맺음말

사람들은 누구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가면서,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설

계하고자 한다. 시대에 따라 개인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다르기에, 그에 따라 사람들이 인식하는 ‘평범한 삶’의 실체와 의미도 같을 수가 없다. 특히 조선시대 여성들의 삶은 남성 중심의 견고한 가부장제가 지배하고 있었기에, 개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갈 수 없었던 상황에 놓여있었다. 노처녀로 늙어가는 자신의 처지를 1인칭 독백의 형식으로 엮어가는 가사 <노처녀가>는 이러한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작품은 신세 한탄으로 일관하는 화자의 진술이 이어지지만, 어떠한 반전도 없이 결국에는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결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함으로써 체념으로 종결되고 있다.

화자는 작품의 서두에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 표출되는 ‘혼자 사설’을 통해, 딸자식의 결혼에 무관심한 부모에 대해 비난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적막한 빈방’에서 진행되는 화자의 진술에서, 부모에 대한 비난과 불만의 어조는 결혼에 대한 화자의 욕구와 비례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나이 사십’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해 노처녀로 늙어가는 자신의 상황이 부모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적령기에 결혼한 주변의 여성들의 상황을 제시하고, ‘인항씨’와 ‘복희씨’와 같은 고대의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남녀가 세상에 태어나 부부로 맺어지는 것이 정해진 법도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작품이 진행되면서 ‘사족 가문’으로서 곤궁한 경제 사정에 처해있다는 현실을 확인하게 되면서, 화자의 부모에 대한 비난의 어조는 다소 누그러들기도 한다.

즉 화자는 자신의 ‘혼인 사설’보다 집안의 ‘가난 사설’이 우선인 부모의 태도에 대해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하지만, 상황을 파악하면서 그것이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여겨진다. 그 와중에 ‘상처’나 ‘기처’의 경력이 있는 남성들을 결혼 상대로 거론하고, 여전히 ‘아름답고 묘한’ 자신의 자태와 거동을 드러내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화자가 닦친 상황은 스스로는 상황을 타개할 아무런 수단을 지니지 못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될 뿐이다. 이러한 화자의 상황은 남성 중심의 견고한 가부장제가 작동하고 있던 당대의 문화와 사회 구조 등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그리하여 끝내 화자에게 닦친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작품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체념으로 종결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화자의 1인칭 독백으로 진행되는 <노처녀가>의 작품 세계와 노처녀의 형상을 통해서 그 사회적 의미를 점검해 보았다.

참고문헌

- 강경호, 「19세기 가사의 향유 관습과 이본 생성 -〈노처녀가 2〉와 그 관련 작품을 통해 본 가사 향유의 한 양상」, 『반교어문연구』 제18집, 반교어문학회, 2005.
(UCI : G704-001785.2005..18.002)
- 강연업, 「〈노처녀가〉를 통해 본 근대 국어의 텍스트언어학적 특징」, 『어문연구』 제61집, 어문연구학회, 2009.
(UCI : G704-000503.2009.61..004)
- 고성혜, 「〈노처녀가〉에 드러난 우울과 애도 - 감정의 치유 과정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제71집, 우리문학회, 2021.
- 고순희, 「〈노처녀가 I〉 연구」, 『한국시가연구』 제14집, 한국시가학회, 2003.
- 김석희, 「〈노처녀가〉 이해의 시각」, 『선청어문』 제36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8.
- 김용찬, 「『삼설기』 소재 〈노처녀가〉의 내용 및 구조에 대한 검토」, 『한국가사문학연구』, 태학사, 1996.
- _____, 「시가와 소설의 경계, 〈노처녀가〉」, 『오늘의 가사문학』 01, 한국가사문학관, 2014.
- _____, 「노처녀가 - 자신의 결함을 의지와 열망으로 극복하다」, 『조선의 마음을 담은 노래』, 휴머니스트, 2020.
- _____, 「노처녀의 결혼에 대한 욕망을 노래하다, 〈노처녀가〉」, 『오늘의 가사문학』 26, 한국가사문학관, 2020.
- 김용천, 「〈노처녀가〉 (I) (II) 고」, 『어문논집』 제5집,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1961.
- 박상영, 「〈노처녀가〉 이본의 담론 특성과 그 원인으로서의 ‘시선’」, 『한민족어문학』 제73집, 한민족어문학회, 2016.
(UCI : G704-001066.2016..73.006)
- 박일용, 「〈노처녀가(1)〉의 담론 형태와 그 시학적 의미」, 『조선 후기 시가와 여성』, 월인, 2005.
- 서철원, 「온전하지 못한 몸과 마주보기 -〈도천수관음가〉와 〈처용가〉의 질병, 〈노처녀가〉의 장애, 〈텐동어미화전가〉의 사고」, 『국문학연구』 제43호,

국문학회, 2021.

성무경, 「‘노처녀’ 담론의 형성과 문학 양식들의 반향」, 『한국시가연구』 제15집, 한국시가학회, 2004.

(UCI : G704-000454.2004..15.010)

손시은, 「삼설기본 <노처녀>의 치유 텍스트적 접근 -수용미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감정적 유대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제105집, 한국언어문학회, 2018.

신동훈 외, 『시집살이 이야기 연구』, 박이정, 2012.

신희경, 「『삼설기』 소재 <노처녀>의 영웅 서사적 성격」,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UCI : G704-001541.2011..22.005)

양정화, 「조선 후기 가사에 나타난 ‘애정 담론’의 실현 양상 -<삼설기본 노처녀>와 <잡가본 노처녀>의 향유 문화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54집, 국제어문학회, 2012.

(UCI : G704-000774.2012..54.006)

양태순, 「규방가사에 나타난 ‘한탄’의 양상」, 『한국시가연구』 제18집, 한국시가학회, 2005.

(UCI : G704-000454.2005..18.010)

이배용 외,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 청년사, 1999.

장정수, 「규방가사에 나타난 ‘혼인 문제’와 여성의 인식」, 『어문논집』 제80집, 민족어문학회, 2017.

조혜숙, 「조선 후기 시가 속의 여성 인물 형상(1)」, 『국문학연구』 제27호, 국문학회, 2013.

(UCI : G704-001747.2013..27.007)

최규수, 「삼설기본 <노처녀>의 갈등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 잡가본 <노처녀>와의 대비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제5집, 한국시가학회, 1999.

최상은, 「조선 후기 여성의 두 가지 욕망과 탄식 -<노처녀>와 <여자탄식>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82집, 한민족어문학회, 2018.

최원식, 「가사의 소설화 경향과 봉건주의의 해체」, 『창작과 비평』 1977년 봄호, 창작과비평사.

하운섭, 「시적 체험의 다양성과 <노처녀가(1)> -규방가사 권역에서 향유된 <노처녀가(1)>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제44집, 구어문학회, 2008.

(UCI : G704-001819.2008.44.1.012)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1999.

| Abstract |

Women's Voice Appearing in <Nocheonyeoga> and Its Meaning

Kim, Yong-chan
Suncheon Univ. Prof.

There is a series of ceremonies, called the rites of passage, that people have each time when they undergo important changes of status. Among them, marriage has been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event in one's life and hence has been called 'Illyunjidaesa', meaning an important event of life. During the Chosun Dynasty, only married people, regardless of sex, were recognized as sound social members. Therefore, Yangbans, the ruling-class people of the Chosun Dynasty, used marriage as the institution to strengthen the solidarity between two families. Owing to various reasons such as economic environment, however, some people could not get married at appropriate age. Because of the social perception regarding the unmarried as 'defective' persons, to get married, even if late,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goals of life.

In particular, 'old maids' were treated as if they did not do their share even in family life. Because they were regarded as the objects of relief in those days, the practical desire of old maids may have been the achievement of marriage. During the late Chosun Dynasty, the issue of old maids became a social concern and was mentioned for national policy, forming so-called 'old-maid discourse'. In the gasa <Nocheonyeoga>, meaning a song of an

old maid, a noble old maid who could not get married because of poverty laments her misfortune in the first-person view. In the present article, a review on <*Nocheonyeoga*> is presented with a focus on women's voice contained in the work to inspect the social meaning of the images of old maids.

In the work, a testimony of an old maid consistently lamenting her misfortune ends up with her resignation stemming from the realization of her circumstance, without any reversals. The narrator expresses her feelings on her circumstance as an old maid, even blaming her parents who are not interested in her marriage. Recognizing difficult household finances in spite of noble family, however, the blaming tone toward her parents is mollified a little. The despaired settlement of the work demonstrates the helplessness of women of the time who could not make their independent living. The hidden side of the cultural system of the Chosun Dynasty, during which a strong patriarchal system was being operated, can be read from the images of old maids.

Key words : *gasa*, *Nocheonyeoga*, first-person monologue, old maid, women's voice, marriage, lamentation, resignation etc.